

유세일 : 11월 24일(화) 학생회관 앞
선거일 : 11월 25일(수) - 26일(목)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15대 총여학생회에서 미래를 본다.

김영준
비전 있는

여성

제/안

또 하나

여 / 남

공 존

에 감

정 령 적 료 령



황시연 · 심인경과 함께 하는 사람들



내 친구 같은 총여학생회



오늘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총여학생회로!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들이 어우러진 웃음을 보낸다.

“무슨 일이세요?”
“학생회랑 친구하려고요.”
“아하하”

함께 신나게 수다를 떠다.

교수님이나 선배들의 자별적인 말, 내가 느낀 성폭력, 불쾌감... 웬지 답답했던 일
상들을 시원하게 털어본다. 어디에서 이런 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나만의 '비밀'도 얘기해 본다.

몇몇은 비디오방에서 떠돌고 또 다른 몇몇은 여성학 강의 발표 준비 때문인지 자
방을 이용하고 있다.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복사기를 쓰는 여학생도 있다. 아
니, 컴퓨터까지

앞방의 심터에서는 제잘거리는 여학생들의 소리가 많다.

어렵고 답답한 일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학생들의 움직임은 아름답게 느껴진
다.

생각해 보니 이런 여움을 얻기까지 언니들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고 싸워야 했을
까?

자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언니들의 몸부림, 학교를 설득시키고 남학생들을 이해시키기
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당하게 변해가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총여학생회의 산
역사인 듯 느껴진다.

이제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총여학생회,

언제나 나의 든든한 지지자로 서 있는 너를 오늘은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우리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 따로어서는 안된다.

'나'를 구분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음'을 향한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다.

열다섯살 총여학생회,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 가려는 자세가 곧 친구같은 총여학생회가 되기 위한 기본이다.

14대 총학생회 평가

총학생회실 개방

총학생회실 전화 사용, 복사기 사용



14대 총학생회는 여학생과 가까워지기 위한 시작으로 작은 것부터 개방을 하였습니다. 모든 그대로 멀리서/가까이 채워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 사업 하나하나에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4대 총학생회는 무엇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 국내 최초의 서울시립대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 추진
- 시립대 내 서울 시민대학교 안에 복록원 설치 확대
-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 디살리기, 컴퓨터 비치
- 어르신과의 간담회 추진
- 교수 공개 채용 광고에 '여박사를 환영합니다' 문구 넣기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루어 졌지만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2500여학생들을 구성원으로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성문제 등을 학생회가 가진 대표성으로 풀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풀어갔느냐 일 것입니다. 즉, 학생회 민주적인 운영원리인 공개와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14대 총학생회는 이렇게 여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보다는 결과만 내놓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평가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더 밝게 내다 볼 수 있고 발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세상나기

얼 마전의 종어는 강하다!

다른 세상, 같은 느낌.

여성으로 날아가

여성으로 세상나기

그 아름다운 여가!

'나는 여성으로 자오라고자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여자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다잡는다.

그녀의 가슴과 손으로, 온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간다.

'그림'이 있어 있는 실버를 하나하나 풀어낸다.

여성에게 날개를 달자!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수 있게.

달라, 달라로 나뉘어 준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단 여성에게서 오르는 미래의 희망을 여가롭게 본다.

또 하나, 평등지수 100%를 공표는 오라

그녀, 그들과 함께 '행복한 공존 시대'를 만들어 본다.

비전있는 여성 자/언

또 하나

이/남 공존 여가

다시 쓰는 '선녀와 나뭇꾼'

1998년, 선녀와 나뭇꾼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뭇꾼: 여기 옷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자유롭고 평등한 '하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익숙한 지상의 문화가 얼마나 당신에게 비인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앗아간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선녀: 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려는 마음, 고맙습니다. 날개를 달면 전 자유의 몸이 되겠지만,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바로 이 곳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뭇꾼: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행복한 공존 시대를 향해 함께 뛰겠습니다.

★ 선녀의 이야기 ★

시대를 변화시킬 새 가치를 지닌 여성. 그녀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지금 그녀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녀들은 비전있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나뭇꾼의 이야기 ★

나뭇꾼은 부장, 부패와 권위로 가득찬 지상의 문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억압적인지 알았다. 그는 자신부터 변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에서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그것은 '용기'다.

용기있는 남성과 비전있는 여성이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움' 세상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 센터 설립 추진

HISTORY에서 HERSTORY로

여성연구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기대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여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연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여류하는데 여비지 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실 설립 취지-

올해는 서울 시립대학교가 탄생 منذ 80주년, 그 동안 시립대에서 많은 인력들을 배출해 왔지만 눈에 띄는 몇몇 여 선배들을 제외하곤 남성들에 비해 그 수가 비율적으로도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와 개인의 삶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여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학내에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학생들의 학과, 사회에 대한 기대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남학생들 못지 않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학생들이 가진 가능성만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잠재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립대내에서도 필요함니다.

먼 미래를 내다 본다면, 지금부터 여학생 문제에 대해 연구와 실행을 겸할 수 있는 여학생 센터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립대내에서 여학생 센터라는 이름하에 묶을 수 있는 것이 여학생 상담실과 취업이라는 부분이며 각 파트별 활성화부터 시작해 봅니다.

-성문화 part-

먼저 여학생 상담실을 들여다 봅시다.

1997년에 문을 연 여학생 상담실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립대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 산하 실무기구입니다. 그리고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처음으로 시도한 의미에서 이 곳은 시립대 건강한 성문화 창출을 위한 특전입니다.

그러나, 인문학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여학생 상담실,

상담실 선생님은 1주일에 단 한번 오시기 때문에 상담이나 그 밖의 프로그램이 단절되고, 학

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컴퓨터 하나 없는 등반 상담실! 상담외에는 이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조?

어제는 상담실의 활성화, 운영의 효율화, 독립적인 위상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마련, 여성학 책 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여성 사이트 검색기가 비치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의 것들을 매일 이용하려면 상담실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제안 "좀 더 멋있게 연애 할 수 없을까?"

1. 친절도 지나치면 베풀다 : 가벼운 손가방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기분은 알겠지만, 알게 모르게 의존적인 관계로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연애가 아닐까요? 자기 일은 가능한 한 자기가 합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 연애도 멋있게 하는 베풀조.

2. dutch pay합니다 : 돈이 돈 같지 않은 요즘, 데이트 비용이라는 게 참 대단치 않죠. "돈이야 그때그때 있는 쪽이 내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미묘한 문제조. 예로부터 각자 부담이 물에 배어 있단데, 무리한 지출도 덜 하고, 혼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찌다가 한 쪽이 내면 장 반가운 호의로 받아들여지고, 이 세 상조라고요.

-여학생 진로와 취업 part-

98년 한 해 동안 총여학생회는 취업 정보실에 여성 전문 취업 담당 부서와, 상담원, 여학생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직원이 7000세대인의 취업을 담당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고민보다는 전체적인 취업률을 올리기에 베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여학생들의 취업은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학생 진로와 취업에 대한 독자성 확보와 전문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있는 취업 정보실에 여학생 진로지도와 취업을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학생 진로와 취업에 대한 독자성 확보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진로 상담 및 코치 그리고 취업 후의 진로까지 상담을 해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겠지요.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졸업한 여 선배님들을 만나 같은 여성으로서 겪어온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보시다.

지속적인 network화를 위해서 인터넷에서도 선배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면 더 좋겠지요.

영어 회화 기본, 컴퓨터 기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취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수가 되어 버렸죠. 하지만 지금 학내에 영어 회화 강좌는 있지만 여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없는 것 같네요. 포토샵, 홈페이지 작성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 교육이 필요하겠죠.

줄 수 있는 여성 전문 취업 상담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

어떻게 서로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여학생 센터라는 이름 하에 통합을 하면 같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보완될 수 있고 좀 더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성의 장장력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만 담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성문화 part 부분에서는 시립대 75%를 차지하고 있는 남학생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실현 가능성 여부네요.

일단 지지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계시는 몇몇 교수님들은 여학생 센터의 취지에 동감을 하셨고 지지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학생 여러분들의 지지입니다. 앞으로의 후배들,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학생 센터는 여러분에게 그려 낸 미래는 아닐 것이여 꼭 필요합니다.



여학생 센터	
싱글 part	취업 part
-여학생 상담실의 상설화	-여성 전문 취업 상담원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
-여성학 책 및 비디오 구비	-언제 형성을 위한 여 선배님들과의 간담회와 인터넷을 통한 network
-여성 사이트 검색 기기 비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상시적인 여학생들의 컴퓨터 교육



성문화 담론의 일상화

-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히 성과 관련 된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 *토론식 수업에 의해 여성들의 생각들을 알게 되었다.

위의 글은 여성학 강의와 성과 사랑 강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성학 과목이 중실되고 수강생들의 연연 이 증폭됨에 따라 눈에 띄게 드러난 것 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 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공간에서도 더욱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활성화 되겠지요. 그래서

중어 동점 게시판의 활성화

-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하기

이학성 실터 게시판 활성화

- 여성문화에 대한 이야기 하기

도서관 실터 게시판 활성화

-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 하기

여성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노래방

- 중어학성회는 여성문화를 담당하고 학교주요 이야기하여 강연이나 특강, 실용적인 것을 담당

중어학성회 나 바닷길을 보고 소강 쓰기 - 옛날이야기 쓰기



여성/남성이라는 주제가 대한 인식 확산하기

HERSTORY에서 OURSTORY로

-남성학 기실 제안-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별가넷과 울며 나가는 막장가지만 남성은 날 때부터 다르게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지극한 정성을 받으면서 자라는데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남이 선호사상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이겠지요?

남자는 울면 안된다. 사내 답게 굴어라. 남자가 슬프지 못 마시나? 남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주위,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피해로 느끼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 남성 스스로 이런 것들을 벗어 버려라. 애써며 여성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을 때 내 안의 여러 결함들이나 짐을 벗는 자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성학을 통해 여성을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남성학 또한 배우게 되면 여성과 남성을 함께 알고 이해하게 되겠지요.

남성학에 개설되면

우리학교에 남성학 강의가 개설된다면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학교입니다.

현재 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구요. 특히 우리학교에서는 도서사범학과 송도영 교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설되면 강의를 주신답니다.

-여학생 소모임 활성화-

행정학과 사람과 사람 · 화학공학과 여
우사이 · 전산통계학과 해무리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현재 시립대에 있는 여학생 소모임과 동아
리입니다.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좀 더 적극적
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총여학생회의 후원
과 지지가 필요하겠죠.

-여학생 간부의 캠프-

학내에 있는 간부들 중에서 30%정도가
여학생 간부이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같은 여학생 간부 입장에
서 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여학생 간부로서 힘든 점을 들으러 가
오고것도 자주 연락하며~
그리고 서로 의숙해 지면 캠프도 함께 가
오~

-여녀 여학생 운동

활성화를 위한 총여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원 제도 마련-

자로집, 리플렛, 대자보, 음연출..... 무슨 돈으로
할까? 후배들이 물어온다.

"언니, 이런 거 할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거
야."

그러니 답답할 뿐이다... 전부 학생들이라 돈도
없을텐데, 돈 되는 일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달
리 돈이 생길 방법도 없다. 경제까지 어려워니
후원도 거의 없고...

대통령 선거도 선거 자금이 나온다는데, 총여학
생회 선거권위도 재정에 구애 받지 않고 선거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육원 세대 운동

함께 하기-

학내 탁아 시설 실지를 요구한 이유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진로 결정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거의 희망을 잃거나 실제 결혼을 하면
직장을 포기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학내에서
이런 탁아 시설 즉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
된다면 좀 더 많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서
울 시면대학교가 몇 년 후에 생긴답니다. 그
건물 안에 탁아시설이 생긴다는 확답을 얻었습
니다. 중요한 것은 시립대 학생들의 이용 권리를
얻어내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오즘 시대에 육아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
것입니다. 이제 육아의 문제는 여/남 모두의 책
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장지도 필요하지요.

때문에 학내에 생기는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 확보를 위해 여/남 모두의 서명작업이
필요합니다.

-남학생 휴게실

설치 지지-

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실 공간이 특별
히 없는 오즘 사실 휴게실이라는 부분은 여
제 여/남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을 기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
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도 몇 년전에 여학
생들의 요구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대표로
학교측과 이야기하여 얻어낸 경우입니다.
만약에 타 학생회에서 남학생 휴게실 설
치를 주장한다면 총여학생회는 같은 학생회
로서 충분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시도 여학생 복지진단



시립대에서 여학생 복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학생 휴게실, 샤워실, 비다방, 운동기구 대여.....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학생회관 2층 여학생 휴게실이겠지요.

아마 윗에는 도서관에도 여학생 휴게실이 생겼겠지요.

여학생 휴게실 이렇게 바뀐대요.

학생회관 2층 여학생 휴게실

이제 4파에서 옹크리고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침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서관 3층 여학생 휴게실

처음엔 책상과 의자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의 요구로 책상과 의자도 더 들어오고 잠자는 방도 커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의 여여적에 맞게, 휴게실 기능 강화를 위해 컴퓨터도 들어온대요...



시선을 중앙 도서관으로 돌려 볼까요? 올라가시느라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1층부터 봅시다.

* 1층에서 열린 열 - 정기간행물실

여학생 : 그 많은 잡지들과 간행물들 중에 여성 잡지는 어디로 갔나요?

학고 : 어디 갔건! 여성 동아, '행복한 가정생활'이 있잖아!!!

여학생 : 포아~ 진취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잡지가 필요해!!!

* 2층에서 열린 열 - 개거열람실

여학생 : 여성학 속제가 있네... 도서관에 책 벨러러 가아지!

포아~ 이렇게 많은 책들 속에 여성학 책은 단...

총여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네.....

* 3층에서 열린 열 - 신문대

여학생 : 음. **일보... '여성란'이다. 영? 집꾸미기..., 음식만들기..., 여성계 소식은 찾을 수도 없

잡아.

여성의 눈으로 쓰여진 신문이 필요해. 어디 그런 신문 없어요~

* 퍽퍽한 여성들이 만든, 여성의 시각으로 만든 (여성신문)이 있대요~~

여성학 강의 수가 많고 책을 펴내서 여성학 책, 여성 잡지, 여성 신문 등은 생활 필수품

처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

<질고 넘어가기>

★ '파트너' 보셨어요?

우리 석화의 '비즈니스게'에는 집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죠?

그러나 그녀는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적당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전략으로 고객들을 설득 시켰지요.

그녀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타당성 있는 감정을 통해 기존의 집대 문화를 한 방에 날려버렸죠!

이처럼 우리의 일그러진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답고 아름답게!

★ 98 전능 제전에서 우승, 준우승한 학과는?

"공대일 것 같은데.."

"NO!"

우승은 수학과, 준우승은 생명과학과입니다.

여학생들이 많으면 각과 망한다구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각과 더 잘 나가는데요.

세상 여학생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 봅니다.

★ 아직도 '남학생 = 뉘, 여학생 = 언' ???

M.T나 동아리 행사 때 보셨나요?

혹시 남자들은 밖에서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설거지하거나 음식을 만들지는 않나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 '함께 하는 세상' 만들어 가요요요요~



100% 평등지수 보장,
황시연 □ 신인경과
함께 하는 사람들
인사드립니다

STAFF

사단장: 이장윤희 (조경 95)

비서단: 박경미 철학 97)

장보배 (환원 98)

김태곤 (전전부 98)

최선하 (환원 98)

정소연 (환원 98)

황주영 (철학 98)

배진경 (건도조 98)

장서단: 장이려화 (회계 95)

김안혜숙 (생명 95)

이창주 (전통 97)

박유희 (철학 98)

선전단: 이종임 (경영 96)

이승연 (경제 98)

고홍경 (환원 98)

선전비서단:

윤 현 (환조 98) R·A·H

이충렬 (경제 98) R·A·H

배지연 (경영 98) R·A·H

이승연 (경제 98) R·A·H

이재경 (환원 98)

김지선 (환원 98)

김정환 (전자전기 98) R·A·H

김동현 (건도조 98) R·A·H

박영규 (물리 98) R·A·H

홍성영 (수학 98) R·A·H

조서단: 박배진희 (화공 97)

신윤미 (경제 97)

편장: 남진미선 (조경 95)

후원에 쓰신 분들:

차진숙(철학 98) 진미선(조경 95) 장윤희(조경 95) 배진희(화공 97) 이려화(회계 95) 강영애(조경 95) 박경미(철학 97) 정현희(화공 96) 이명진(경영 95) 안혜숙(생명 95) 이현희(행정 94) 이종임(회계 95) 한정호(화공 93) 안경미(반도체 95) 국미애(경영 94) 조기환(재계 89) 그리고 탈반, 흡사랑, 환원과, 환공과 여러분들....